



지원한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최소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건축물(공동주택 일 경우에는 5면 이상, 학교·종교시설 등은 10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주차수요가 있고 개방 가능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부설주차장 16개소 1766면 △아파트 부설 주차장 4개소 99면 △학교주차장 3개소 679면 등 총 2544면의 건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차장(야간) 개방사업 관련 문의는 교통지도과(3153-966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해 주차장 개방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영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사업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 많은 기관에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시정일보(<http://www.sijung.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